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확인 후 잠시 눈을 감고 있다.

鄭, 압승에도 전북·부산북갑 고전... 野, 참패에 비대위 수순

與野 지도부 운명 갈림길

與, 영남 제외 석권 압승 분위기 속 전북 무소속 선전에 공천 책임론 평택을·부산북갑도 리더십 변수 연임론·합당론 맞물려 전대 과열

野, 영남권 흔들리며 책임론 확산 장동혁 사퇴 후 비대위 전환 전망

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정 대표는 지선에서 이겼음에도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여부도 전당대회를 과열 양상으로 만들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그룹의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이 겹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재추진한다면 반청 진영에서는 '연임 포석'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엔 평택을 선거에서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합당 여부는 미지수의 영역으로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른 이유'로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구까지 내주고 경북만 지킬 경우, 16개 시·도지사 중 1곳만 지켰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구조사에서 전통적인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시장마저 접점으로 나오면서 정 대표의 지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유어게인' 등 극우 노선을 견지하며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지 못하고 따로 지역을 돌았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강원·충남 등 지역 외 다른 곳은 거의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관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선대위원장' 급으로 전국 곳곳을 방문했다. 이는 당 대표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

다만 영남권을 일부 지킨다 하더라도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대패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므로 정 대표가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또 지방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돌풍은 정 대표에게 정치적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는 정 대표 체제에서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역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냈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정 대표가 이번 주 중으로 사퇴를 선언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다수의 관측이다. 다만 비대위 체제로 바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총선과 2026년 대선 당시에도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 '관리형'이나 '혁신형'이냐로 몇주간 논쟁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통상 직무대행을 맡은 원내대표가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들은 후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임

기가 이달 중순에 끝나기에, 비대위원장 지명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박민지 프로 KLPGA 통산 20승 달성

위대한 기록 새로운 시작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죠”

멋진 스윙보다 화려한 트로피보다 짜릿한 역전승보다

이 순간 가장 빛나는 것은 함께해 준 모두에게 전하는 박민지 프로의 마음입니다

20승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기에 NH투자증권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